

2021 년 6 월 18 일

가족 여러분께,

우리는 해냈습니다!

우리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던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 학년도의 마지막에 도달하였습니다. 저는 이 순간을 빌어 우리 학생들과 가족들이 지난 1 년 반 동안 성취해 낸 모든 것을 축하하고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번 학년도를 힘차게 끝맺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덕분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교육을 최우선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작가 Maya Angelou 의 말 중에 인간의 강인함과 치유력에 관하여 이야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2009 년 출간된 책 *Letter to My Daughter* 중의 에세이에서 Angelou 는 이렇게 썼습니다: “당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통제할 수 없을지 몰라도 그것에 의해 위축되지 않을 것을 결정할 수는 있다.”

어려움에 맞서 대응하는 이 정신은, 전혀 없는 도전에 맞서 이겨낸 우리의 경이로운 학생들과 그 가족들을 잘 묘사하는 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함께:

- 가정 원격 수업에 적응하였고, 일부의 경우 몇 달간 떨어져 있다가 학교로 복귀하였습니다.
- 학업에 집중하였습니다.
- 가족 및 친구들과 연결하는 새로운 방식을 배웠습니다.
- 원격 학습을 하건 마스크를 착용한 채 등교하건 간에 매일 매일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웃을 향한 끔찍한 폭력을 보았을 때 목소리를 드높였고, 반 흑인, 반 유대적, 반 아시아적 폭력과 반 무슬림, 다문화 및 동성애에 대한 공포나 우리의 일상에 해를 끼치는 기타 모든 편견이나 차별을 절대로 묵과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커뮤니티와 굳건히 연대하였습니다—그것이 바로 뉴욕커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연대 정신의 연장선상에서, 저는 여러분께 아주 중요한 날 하나를 소개할까 합니다. 6 월 19 일, Juneteenth 는 미국의 노예제도가 폐지된 날입니다. 저는 교육자로서 우리 학생들에게 노예제도를 흑인 역사, 그리고 더 큰 관점에서는 미국 역사의 맥락에서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이제 Juneteenth 는 또 다른 이유에서 역사에 남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 바이든 대통령이 6 월 19 일을 연방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에 서명하였기 때문입니다. 올해 Juneteenth 는 저희가 아직도 우리 이웃과 동료 뉴욕커들, 그리고 동료 미국인들을 위협하고 상처 주는 체계적 인종차별을 깨닫는 와중에 다가왔습니다. 저는 COVID-19 팬데믹이 유색인종들에게 유난히 큰 타격을 준 사실을 되새겨 봅니다. 저는 Tulsa 대학살이 있는지 100 년이 지난 지금, 우리 미국 최초의 진정한 깨달음에 관하여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저는 뉴욕시의 모든 학교에서 평등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해야만 하는 모든 일들에 관해 생각해 봅니다.

Juneteenth 에 관해 더 자세히 알아보고, 뉴욕커들과 흑인들에게 이것이 갖는 의미에 관해 알아보고 싶은 분들은 웹사이트 schools.nyc.gov/Juneteenth 에서 동영상 및 각종 자료들을 보시면 이 중요한 날에 관해 더 상세히 알 수 있습니다.

교육감으로서 제 직무는 백만 명에 달하는 우리 학생들이 현재의 어른들이 상상할 수조차 없는 미래 세계에서 비평적으로 사고하고 성공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게 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여러분에게 경외감을 느꼈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은 올해 제게 많은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목소리를 드높여 변화를 가져오는 방법에서부터 힘든 시기에 굳건하게 버티는 방법에 이르기까지 말입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적응하는 방법에서 Maya Angelou 의 말처럼 그런 것들로 인해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앞서 나가는 방법 등을 말입니다.

저는 교육감이 된지 불과 4 개월 남짓 하지만 이 한 가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라면 성취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사실 말입니다. 우리가 지난 한 해를 버텨냈다면, 우리는 올 9 월 분명히 최고의 성과를 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올 가을 모든 학생들의 대면 수업을 앞두고, 저는 12 세 이상 모든 사람들이 COVID-19 을 접종할 것을 권장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지역사회와 이 도시를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입니다. 여러분과 자녀를 위한 백신 접종 예약은 웹사이트 vaccinefinder.nyc.gov 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20 년 이상 교직에서 지낸 저는, 어쩔 수 없이 숙제를 내며 이 편지를 마무리 하겠습니다(걱정 마세요, 시험은 치르지 않겠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가 올해 성취한 모든 것을 축하하기 바랍니다. 함께 시간을 보내며 자주 안아주고, 함께 새로운 경험을 하고, 웃을 이유를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충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잘 버텨 왔습니다. 그리고 올 가을, 과연 우리가 얼마나 잘 해낼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협력하며,



미샤 포터
뉴욕시 교육감

P.S. 다시 알려드리지만 K-12 학년 모든 학생들은 뉴욕시에서 제공하는 무료 서머 엔리치먼트 프로그램인 Summer Rising 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와 등록 방법은 다음 웹사이트에 있습니다: nyc.gov/summerising.